

정부지원사업 유치 발빠른 행보

대구 경북 IT여성기업인협,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내년도 각종 정보통신부 연구사업 유치를 위해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기로 결정,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경주에서 정보통신진흥원 김영진 단장을 초청해 내년도에 추진되는 IT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내년에 추진되는 IT 관련 연구 개발사업 가운데 RFID, 소프트웨어 솔루션, 디지털 콘텐츠 등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신규사업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치할 경우 10억원 한도내에서 연구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RFID, 소프트웨어 솔루션,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신규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다음달 15일 정보통신부 IT 기업 지원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한편 올 연말까지 정부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 관계자를 초청한 간담회를 한달에 3회 이상 가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특허청 심사위원 및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초청해 특허 출원, 기술평가,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엑스코에서 가졌으며 지난 5월과 7월에도 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처럼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정부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IT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배정되는 규모는 막대하지만 지역 여성기업에 지원된 실적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보통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IT연구사업비 규모는 2천5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여성 기업인은 5%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서울, 경기, 대전지역에 편중된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정부지원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부사업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다음달 영남대, 대구카톨릭대 등 지역 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30일 대구시의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기관 단체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가진다.

김충희기자 ch75@idaegu.com